

처방약의 비급여 전환에 의한 의사들의 처방행태 변화

정영진, 조흥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2001년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확대 조치가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의 처방행태를 변화시키는 보건의료 제도적 요인은 의약품 처방에 빠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에 의한 의사들의 처방행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대한약사회에서 전국의 약국분포에 맞게 추출한 417개의 약국에서 2002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수집한 2002년 3월 4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2002년 4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처방조제 자료와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파일을 이용하여 2002년 4월 1일자로 비급여 전환된 의약품 979개 품목과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처방률, 품목비율, 투약일수, 품목수의 변화를 의사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비교하였다.

결과: 사전조사의 결과 2002년 4월 1일자로 비급여 전환된 의약품 979개 품목의 처방율은 24.6%에서 1.16%로 감소하였으며, 보험급여되는 다른 소화기계 약물의 처방률은 28.83%에서 47.87%로 증가하였다.

결론: 의사들의 처방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 의사는 제도적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방법을 통한 의사 처방행태의 변화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사들의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와는 별개로 적극적인 동기부여와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처방행태, 개원의